◇3~4세기 제작된 부처의 형상을 묘사한 벽화조각.

중앙박물관 수장고 실크로드 불교유물 1800여점 종합조사

국내에는 '실크로드 불교예술품'이 몇 점이나 있을까? 또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 국립중앙박물관이 최근 실크로드 유물에 대한 종합조사를 시작해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려 놓는다.

기원전 2~10세기 동서 교역로였던 실크로드는 동서문화의 퓨전을 통해 독특한 미술양식을 낳았다. 세계 고고미술학계는 이 유물을 '오타니 콜렉션'으로 분류, 주요 연구 주제로 삼아왔다.

현재 박물관 수장고에 있는 '오타니 콜렉션'은 1천8백여 점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부분 중국 신장성과 간쑤성 등 석굴 사원에서 출토된 불교관련 유물들과 무덤에서 출토된 부장유물들이다.

이중 부처의 형상을 묘사한 3~4세기께 벽화조각은 중앙아시아에 끼친 헬레니즘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초기 벽화의 역사를 알 수 있게 하는 세계적 명품이다. 또 베체클릭 출토 벽화 조각인 '슬퍼하는 승려상'은 뉴델리국립박물관, 중국 여대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벽화조각으로, 보존상태가 가장 좋다.

◇중국 간쑤성 석굴사원에서 발견된 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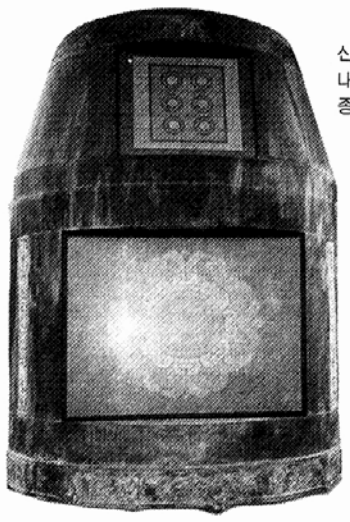
그러나 박물관은 지금까지 유물의 출토지와 미술사적 가치 판단을 유보한 채 목록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종합조사는 그동안 베일에 쌓인채 국내에서 소장되 오던 중앙아시아 불교유물의 가치를 확인하고, 또 세계적 수준의 유물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국종합예술학교 권영필 교수는 "오타니 콜렉션의 미술사적 가치를 평가할 만한 전문가가 없어 방치하고 있었던게 사실"이라며 "뒤늦게라도 박물관이 중앙아시아 유물에 대한 종합조사를 실시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내 소장 오타니 콜렉션은 일제 패망 때까지 조선총독부박물관에 소장된 것들이다. '오타니'는 일본인 오타니 고즈이(1876~1948)에서 따온 말. 그는 1902년부터 1914년까지 탐험대를 이끌고 3번에 걸쳐 중앙아시아·몽고·티베트 등을 누비며, 각지의 석굴사원과 무덤에서 벽화·조각 등 수많은 유물을 수집했던 인물이다. 국내 소장 중앙아시아 유물은 1916년 조선총독부박물관에 기증됐던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종합조사가 끝나면 2003년 개관하는 용산 새 박물관에 2,000여평 규모의 중앙아시아실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성덕대왕 신종의 소리를 내는 '전자대종'

전자음으로 듣는 에밀레 종소리

배명진 교수 전자대종 개발…새해 타종

성덕대왕신종(일명 에밀레종)의 맑고 그윽한 소리를 빼닮은 전자대종이 개발됐다.

숭실대 배명진(정보통신) 교수는 에밀레종 소리와 아홉 가지 한국의 전통적인 종소리를 내는 전자대종을 개발해 15일 공개했다. 이 종은 경북 구미시의 의뢰를 받아 배교수가 7개월간의 작업 끝에 완성한 것.

배교수와 구미시는 이달말 시의 낙동강변 동락공원에 이 종을 설치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타종할 계획이다.

높이 3.75m의 전자대종은 전자장치를 통해 종소리를 내도록 만들어졌다. 작은 모형종을 때리면 레이저 빔이 나와 전자대종의 몸체에 발사된다. 그 순간 전자대종 내부에 있는 스피커에서는 장중한 소리가 울리는데 1km 밖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다.

전시·공연 '풍성'…영화·평론 '빈곤'

결산 '99 불교문화

올 한 해는 여느 해보다 불교계 문화활동이 활발했다. 불교의 세계관을 다양한 형태로 펼쳐보인 전시회가 100회 가까이 열렸는데, 이중 불교적 사유를 담아낸 일반 작자의 전시회도 다수 들어있다. 또 처음으로 불교 오페레타 '아미타불'이 공연되었고, 발레·댄스·패션 등의 무대에서도 불교의 예술적 에너지가 활력을 불어넣었다.

화단에서는 불화의 큰 산맥인 만봉 석정스님과 불모 우일스님의 불화전시, 성파스님 염색전, 관조스님 사진전 등을 비롯해 범주 성륜 화엄 무관 통칙스님 등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또 이요환씨의 사경전, 중앙박물관의 '아름다운 금강산', 박정자씨 화집발간, 이왈종 박찬갑 정비파씨 등의 전시가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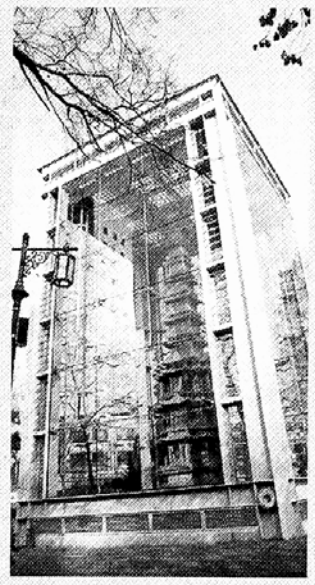
무대에서는 교계 최초 오페레타 '아미타불'이 3천 5백여 명의 사부대중의 마음에 연꽃을 심었고, 극단 현대의 뮤지컬 '팔만대장경', 극단 우림의 '천년보다 깊은', 극단 유시어터의 '철안붓다' 서울예술단의 가무극 '향가-그 사랑의 노래' 등이 공연했다. 또 전주 송광사에서는 일본 후지에다 무시마루의 구도의 과정을 그린 행위 예술 무대가 마련됐었고, 동국대 불교무용단은 스페인 국제 민속축제에서 나비무, 바라무, 승무 등을 선보여 세계인의 갈채를 받았다.

그 밖에도 불교문화는 록, 발레, 가요, 패션 등 동떨어진 듯한 장르와도 적극 손을 잡았다. 그 중 드드러진 활동은 보인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5월 올림픽공원내 펜싱경기장에서 창단 공연을 가진 불교 록그룹 '카르마', 현대무용가 한칠씨와 동국대 체육학과 교수인 손재현 무용단, 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서 결성한 '부루나', 한성대 의상생활부 이기향 교수의 '영취산의 환희' 등. 이중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막을 올린 '아미타불'에는 전국 주요 사찰에서 결성된 1천여 명의 합창단이 찬불가 80년사를 정리했던 뜻깊은 무대였다.

그러나 전시와 공연 부문은 풍성한 열매를 맺은 반면 사진·평론·영화 부문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특히 변화하는 문화흐름을 올바로 읽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평론의 부재는 조속히 선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또 기획중이거나 촬영중인 영화 '성철'이나 '동승'도 불교계의 정서와 제작사의 재정난으로 촬영이 지지부진하다는 게 아쉬움으로 남는다.

오종욱 기자

◇지난 10월 19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공연한 불교계 최초 오페레타 '아미타불' 공연 장면. 이날 3천 5백여 명의 사부대중 동참해, 뜨거운 갈채를 보냈다.



◇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내 원각사지 10층석탑(국보 제2호)의 유리 보호각 설치 공사가 한창이다. 12월 말경 준공된다.

원각사지탑 유리각에

조선시대 석탑중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서울 탑골공원내 원각사지 10층석탑(국보 제2호)이 유리 보호각을 두른다. 서울시는 10일 산성비와 비둘기 배설물 등으로 훼손이 가중돼 온 석탑의 보호각을 이달중 준공한다.

이 보호각은 가로 8.4m, 세로 8.4m, 높이 15.4m 규모로 네 모서리에 세워진 철골조에 두께 21.5㎜의 고강도 유리를 끼운 형태로 작년 11월부터 공사가 진행돼 왔다.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1467년 현 탑골공원 자리에 있던 원각사에 세워진 높이 12m의 탑이다.

이 석탑은 일반적인 석탑의 재질인 화강석이 아니라 마모되기 쉬운 성질의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현재 훼손이 심한 상태다.

문화재로 보는 백제불교

부여박물관, 26일까지 7백점 전시

백제불교문화의 진수를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국립부여박물관에서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부여박물관 개관 70주년 특별전으로 백제를 대표하는 유물 7백여점이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에서 눈에 띄는 작품은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에서 출토된 백제금동대향로 등 13점의 국보급문화재와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에서 출토된 금동보살입상등 4점의 보물이다. 전시작들은 부여박물관 공주박물관 등 7개 국립박물관과 15개 대학박물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백제시대 유물 가운데 대표작을 엄선한 것.

동국대박물관 새단장 재개관

동국대학교 박물관(관장 장충식)이 새단장을 마치고 재개관했다. 새로 개관한 박물관 전시실에는 그동안 전시 공간이 부족해 수장고에 보관돼 있었던 국보 제176호 '청화백자송죽문호'를 비롯 '감지은니묘법연화경' 등이 새롭게 전시됐다. 또한 전시실 정면에 전시돼 있던 법주사 수정암 석불(통일신라시대)도 전면 보수됐다. 이밖에도 전시실은 기존의 목제 진열장을 철제로 교체해 유물의 안전과 전시효과를 높였다.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대구여래한방)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